

지란지교와 청출어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이 갖는 의미

기고



김대영
육군보병학교·소령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전술담임교관’의 정의는 ‘전술 중심의 통합 교과체계 하 담임 학급에 대해 자신의 혼을 담아 도제 식으로 전술관(戰術觀)을 전수하고 훈육지도를 전담하는 교관’이다. 전술담임교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됐을 때, 교관 또는 선생보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전술담임교관이 교육생들에게 본인의 실패담을 들려줘도 괜찮을까? 항상 모범이 되는 멋진 교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교관 임무 수행을 준비하던 때까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연습과 실전은 언제나 괴리가 있듯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다. 대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기개발을 자주하는 편이다. ‘자기개발’이란 집단상담에서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지 친해지기 위해 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겪어온 군 생활의 교훈을 후배 장교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며, 교육생들은 나를 본받기도 하고 나의 실패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한다. 나를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내가 가진 지식, 생각, 가치관 등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실전’을 통해 배웠다.

교육생들과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교육생들과 수업하는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고 성장한다. 교관은 교리를 강의하고 학습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토의 과정에 적절히 개입해 핵심을 짚어주고, 주요 쟁점을 정리해 줘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해한 교리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개념화·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교관 스스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확산하게 된 ‘전술관’에 대한 소신은 그것이 담임교관과 같은 특징인에 의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군의 발자취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교육생은 스스로 자신의 전술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관은 교육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동고동락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뜨거운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는 지란지교(芝蘭之交)와 청출어람(靑出於藍)이 공존한다.

분신과도 같은 교육생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지금, 영화 ‘이보다 더 좋은 순 없다(1997)’의 주인공 잭 니컬슨의 대사를 빌려 마음을 전한다.

“You(all)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박창식 편집인 이길호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7100337 | 인쇄인 정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디지털기획팀	디지털뉴스 02-2079-3710-4 국방저널 02-2079-3715-6	군947-3710-4 군947-3715-6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1-4	군947-3730-42 군947-3761-4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광고문의	02-2079-3123	군947-312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자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달이다. 우리나라는 제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내세웠으나 가난과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느라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지속되면서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을 얻는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미국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국가자유지수 평가에서 자유국가로 분류된다. 2020년 세계 195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는 ‘자유’ 82개국, ‘부분적 자유’ 59개국, ‘자유 없음’ 54개국이다. 자유국가에 포함되는 국가가 40% 정도다.

그럼 민주주의에 대한 더 보수적인 평가를 살펴 보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2020년 167개국에 대한 조사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합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체제’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구분됐고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조사 국가의 13.8%가 완전한 민주국가이고 인구로 따지면 세계시민의 8.4%만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5월 18일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날을 기념해 1997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일’이다. 민주주의 가치 존중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시

조명탄



김병조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민의 의무를 다짐하는 날이다.

흔히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이라고 한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일반 시민과 구분된다. 군인은 시민사회를 지키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군 장병은 검역에서 환자 치료, 임시생활시설 지원, 백신 수송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에 앞서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군복 입은 자의 헌신에 존중과 감사를 간직하고 표현한다.

다만 겉보기에 쉽게 이뤄지는 군 장병의 시민사회 지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불란한 군 장병의 시민사회 지원은 위계와 명령을 존중하는 군대 특성을 체화한 결과다. 위계와 명령을 존중하는 군대는 시민사회와 다른 운영방식을 갖는다. 군대에는 다수결 같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군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

한다.

군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사회 지원 확대를 고민하는 한편, 밀폐·밀접·밀집 특성을 갖는 생활환경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분투한다. 외출·휴가 등 이동 제한도 시민사회보다 엄격하게 하고, 잠재적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격리 장병이나 입영장병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돼 시민사회는 물론 장병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 군대는 시민사회와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 장병이 시민과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복 입은 시민이란 군 장병이 ‘군인’이기 전에 ‘시민’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관용구다. 군복을 입어 일반 시민과 구별되나 군인의 본질은 시민이라는 의미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와 장병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 확산 억제에 집중하다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잃는 오류를 범했다. 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국민의 생명·재산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공병 소대장이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전투공병 소대장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얼마 후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2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면서 내가 받았던 인수인계서를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년 전, 낮은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장교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공병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깨 위의 푸른 견장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소대원들을 무사히 부모님의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관을 앞두고 가장 고민한 것도 소대원과의 관계 형성이었으며, 지금까지 나의 군 생활에 가장 큰 의미를 남긴 것도 소대원과의 관계다. 군 생활을 하면서 지휘관과 부하 간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공병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소대원들과 함께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됐다. 지뢰 탐지와 제거는 위험하면서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 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전방에서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의 판단과 통제 방법이 소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무거운 안전복을 착용하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

견장일기



윤희웅
육군2공병여단·중위

며 작전을 수행했다.

현장 상황 판단도 중요했지만 소대원들의 평소 고민거리나 상태도 파악하고 있어야만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일과 종료 후에도 소대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숙영하며 그들과 하루를 온전히 공유했다. 그 덕분에 나는 소대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다.

소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한 명 한 명의 강점을 파악해 임무를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 덕분에 고된 작전에도 함께라면 힘이 났고, 믿고 따라주는 소대원들 덕분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함께 완전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소대원들을 지휘하고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전역을 앞둔 용사가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대장님을 더 일찍 만났다면 제 군 생활이 더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대원들에게 지금처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라고 했다. 여전히 내게 큰 여운을 남기는 고마운 한마디다.

소대장의 진심이 소대원에게 닿으면 소대원 한 명 한 명이 의미 있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의 소대원들은 20대 초반 꽃 같은 시기에 나라를 위해 군대에 왔다.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소대원들이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문턱을 향해 걷고 있는 지금, 소대원들과 함께하며 얻는 지혜와 자신감은 앞으로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풍부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임장교의 지휘실습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야전에서 공병 소대장 임무를 수행할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다.

“소대원들에게 소대장의 진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진심이 닿으면 그들의 경계심은 눈 녹듯이 녹을 것이고, 하나로 뽕뽕 뭉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소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